"부정행위 수험생이 대학 입학 이후
우수한 성적 등의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

원고패소

수능부정 끝내 '멍에'로

광주 ROTC 임관 앞둔 대학생

'4년의 열정·노력' 물거품 위기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광주 모 대학 4학년 K(22)씨. 그는 재학시절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편입돼 교육과 훈련을 마쳤으며, 졸업과 함께 내년 3월 소위 임관이 예정돼 있다. 재학 중 장학금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열중했다.

이렇게 대학 4년 동안 쏟아부었던 열정과 노력은 최근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4년 전 저지른 '수능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수능 성적 무효 통보를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 200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2005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2교시 수리영역 시험 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리영역 정답 10여개를 전송받아 이를 답안지에 옮겨 적었다고 진술했고,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가장 낮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려줬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16일 K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했고, 대학 측에서도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학생활 4년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K씨는 법원에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K씨는 "고교 내신과 면접 점수로 수시전형에 합격했다. 수시전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능성적 무효만을 이유로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건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입건유예 처분에 불과한데, 만약 대학 측의 입학 무효 통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학군단에서 축출된다면 장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수능부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공익보다 한 개인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큰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행위 수험생이 합격한 후 부정행위가 발각됐음에도 장기간 세월이 흘렀다거나 대학 입학 이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측은 항소할 계획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K씨의 4년 인생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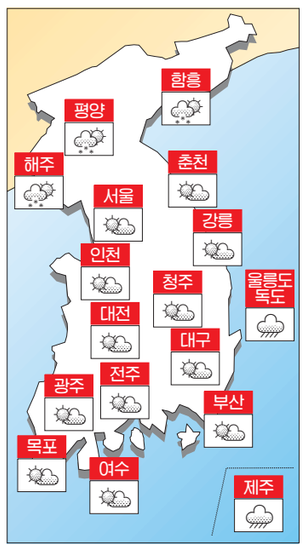
찬 바람 맞은 시금치 수확 찬 겨울 바람이 불 때면 시금치의 맛이 한결 더 깊어진다.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월성마을 농민들이 시금치 수확에 한창이다. 출하 가격은 16㎏ 1박스에 3천원.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낮부터 추위 풀려

12월 12일 (음 10월 22일) ◇전국날씨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다.

광 주	차차 흐려짐	1~10℃
목 포	차차 흐려짐	1~10℃
여 수	차차 흐려짐	4~9℃
완 도	차차 흐려짐	2~10℃
구 례	차차 흐려짐	-2~12℃
해 남	차차 흐려짐	-2~10℃
장 흥	차차 흐려짐	-2~10℃
고 흥	차차 흐려짐	-1~10℃
순 천	차차 흐려짐	-2~12℃
영 광	차차 흐려짐	0~10℃
진 도	차차 흐려짐	0~10℃
전 주	차차 흐려짐	-1~10℃
남 원	차차 흐려짐	-3~10℃
정 읍	차차 흐려짐	-1~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6:44 19:21 썰물 00:17 12:07
여 수 밀물 01:44 14:11 썰물 07:45 20:46

▲해뜸 07:31 ▲해짐 17:21 ▲달뜸 --:-- ▲달짐 12: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 씨						
최저/최고	5/7	3/10	3/8	-3/2	-4/4	-4/6

"평화시위 정착 물러서지 않겠다"

이택순 경찰청장 e-메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연말을 앞두고 시위 대응에 대한 고뇌와 소신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 청장은 지난 10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낸 '15만 경찰관에게 보내는 편지'란 e-메일에서 "올해 중요한 테마였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란 과제가 결국 실망스럽게 끝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해서일까"라고 자문한 뒤 "책임을 미루고 싶진 않지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현상의 근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미국 경찰처럼 해야 한다고 응원 겸 훈수를 주신다. 그러나 한국의 현 시점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교과서 같은 말씀이다. 말 안 듣는다고 시위대를 총으로 쏘고 죽도록 패고…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 청장은 "시위 문화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서두르지 않겠지만 절대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시위에서 다친 경찰관과 시민들의 쾌유를 빌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열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리스크 큰 상품 권유 투자 손실

"증권사에 70% 책임있다"

증권사 권유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1일 5억5천만원을 주가지수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 1억5천여만원을 잃은 최모씨 등 2명이 A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계좌를 개설토록 권유한 것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 여부나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 여부의 최종적인 선택은 원고들이 한 것이고 원고들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과 무지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30%, 피고는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월요일 음주운전 최다

월요일 날은 음주운전 하는 날?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첫 주인 지난 1~7일 광주·전남에서는 535명이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중 월요일인 4일에 가장 많은 105명(19.6%)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요일이 103건(19.3%)이었고 ▲수요일 97건(18.1%) ▲목요일 90건(16.8%) ▲화요일 70건(13.1%) ▲토요일 44건(8.2%) ▲일요일 26건(4.9%)의 순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489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적발자 중 남성 운전자가 475명으로 88.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가 179건(33.5%)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40대가 173건(32.3%), 20대가 127건(23.7%), 기타 연령대가 56건(10.5%)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천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천207건) ▲부산(648건) ▲충남(562건) ▲전남(535건) 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실업고 인기 상승세

광주 지원율 작년보다 7.5%P 높아져

실업계 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교육청은 11일 실업계 고등학교의 1차 모집을 마친 결과, 지난해보다 7.5% 높아진 110.1%의 지원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공고·광주자연과학고 등 13개 광주시내 실업계 고교에 총 5천566명(정원 5천57명)이 지원해 509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광주자연과학고는 정원 210명에 299명의 학생이 몰려 13개 학교 중 가장 높은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666명을 모집하는 광주공고에는 849명(1.2대 1)이 몰려 183명이 불합격했다. 정원이 미달된 학교는 370명 모집에 356명이 지원한 전남여상 한 곳에 불과했다.

실업계 합격자 중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각 중학교 상위 70%)의 학생수도 875명으로, 전년도 739명에 비해 118%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교육 박람회와 실업계 학교의 대외 홍보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견이 줄어들고 있다"며 "실업계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학교'라는 예전의 인식도 이젠 옛 말"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역~정동진 신년 해돋이 열차 운행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는 '새해, 새희망! 정동진 신년 해돋이 열차'를 운행한다.

해돋이 열차는 12월31일 오후 7시30분 광주역을 출발, 1월1일 새벽 4시께 정동진에 도착한다.

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한 뒤 열차로 신기역으로 이동, 기암괴석이 갖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환선굴'을 관람하게 된다.

해돋이 관광요금은 새마을호 열차 운임과 연계교통비, 환선굴 관람료 등을 포함해 ▲어른(경로 포함) 9만9천원 ▲어린이 8만9천원이며, 예약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다. 문의 대원여행사(350-1000).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